

◆ The Situation and direction of Reading Movement in Korea

# 우리나라의 독서운동 현황과 방향

도서관인이 본

## 독서운동의 현황과 방향

김 경 일

(국립중앙도서관 독서상담실)



### 1. 독서운동의 현황

독서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책과를 직결시키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과 책과의 직결은 국민들로 하여금 독서를 생활화하여 국가의 정신적인 기반을 확고히 하고 국민 개개인의 정신적인 잠재 능력을 개발하므로써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밑거름이 되게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국민과 책과의 직결 목적에서 현재의 우리나라 독서운동의 실패를 독서운동 기판별로 고찰해보기로 하겠다.

#### (1) 독서운동을 위한 선정도서 사업

독서운동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국민들로 하여금 독서를 하겠다는 결심에서 시작하여 이의 다음 단계인 "무엇을 읽어야 하나"에 대한 독서자료의 선택안배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독서자료의 선정은 현재 문공부의 "우량 도서선정"과 도협의 "선정도서목록" 등 두가지가 있으나 전자는 국가에서 선정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실증을 기하기는 하나 그 범위가 너무나 좁으며 선정도서의 공고가 단시간으로 끝나 버리기 때문에 고루 주지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큰 결점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후자는 도서관용 선정이지 독서운동을 위한 선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독자층과는 전혀 정보 소통이 없되기 때문에 사실상 독서운동을 위한 선정 사업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하면 독서관장을 위한 선정안배는 문공부 이외는 없다는 결론이 된다.

#### (2) 국립중앙도서관의 독서운동

국가의 중앙도서관으로서 사회교육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독서운동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수립과 독서인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은 도서관의 기능면에서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독서운동의 사업 내용으로서는 독서상담실의 설치, 어린이 독서회의 개최, 독서의 노래 제정 보급, 전국독서실태조사 등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독서운동이 국립중앙도서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 전국 공공도서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인구 개발을 위한 독서운동을 추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

#### (3) 마을문고를 중심으로 한 독서운동

마을문고가 전국의 농어촌을 대상으로 책을 주민들 가까이 제공하여 독서인구를 개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현재 20,310개의 문고가 설치되어 전국적인 독서운동으로서 가장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동이라고 하겠다.

#### (4) 국민독서연맹의 활동

국민대중에게 생산적이고도 건설적인 독서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독서연맹은 도시의 서민층, 직장, 군인, 가정문고 등의 설치운동과 독서관장을 위하여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자금과 인원 등의 부족으로 만족한 독서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음을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 (5) 자유교양협회의 독서운동

이 단체는 주로 초, 중, 고, 대학생들에게 고전 읽기운동으로 시작하여 각 시도교육위원회의 지원을 얻

어 비교적 강하게 학교 현장에 침투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읽는 측인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독서능력과 도서선택 문제에 있어서는 재검토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학교를 조직망으로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특성만은 계속 살려야 하겠다.

(6) 기타 단체들의 독서운동

위에서 언급한 단체 이외에도 대한출판문화협회, 국립독서협회 독서신문 등이 자기 자기들의 활동 목표에 따라 신간전시라든가, 독서를 권장하는 계몽운동이 심치 않게 전개되고 있으나 전국화되지 못하고 지역적인 운동으로 끝나친다.

이상에서와 같이 현재의 우리나라에서의 독서운동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았으나 기관별 실태에서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운동은 서울 종로도서관에서의 이동문고를 통한 독서운동이외는 개개 전통화된 도서관 봉사활동에서 조금도 진일보하지 못하고 독서인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도서관이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독서운동의 현실정에서 볼 때 독서운동의 대상별 단체는 국민독서연맹, 마을문고, 자유교양협회 등이 있지만 자기 산만적인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어떤 유기적인 조직과 연락이 없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러한 독서운동의 실태에서 앞으로의 독서운동의 추진방향을 다음에서 찾아보기로 하겠다.

2. 독서운동의 방향

독서운동의 방향과 방법은 사회의 여러 기관 단체, 등 자기 자기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전개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주로 도서관적인 입장에서 독서운동에 대한 방향을 찾아 보도록 하겠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각급도서관이 자기 봉사대상자를 위해서 독서자료들을 선택하여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서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이 두가지의 조건은 각급 도서관으로 하여금 독서인구개발의 기본요소가 된다고 함을 다시 한번 도서관전문직들은 인식하여야 하겠다. 특히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역사회 주민과 학교도서관에서의 어린이 학생들의 독서지도 활동은 그들 도서관의 기능면에서도 가장 강조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제에 대해서 도서관 전문직들이 이해는 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활동면에서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그 이유는 그와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독서자료와 독서시설이라는 두가지의 기본 요소 이외에도 다른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다. 도서관주간과 독서주간을 통하여 우리 전문직들은 도서관에 국민들이 접근

해줄 것을 호소한다. 그러나 미독서층은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함을 우리들은 주간행사를 끝마친 후에 깨닫게 된다.

진실로 도서관이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교육 문화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무관심속에서 진행되는 관내열람 참고봉사 등 한정된 독서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봉사의 기본방향에서 한 걸음 더 진진하여 국가의 당면과제인 정신자원 개발을 위한 미독서층의 개발을 위해서 과감하게 독서자료를 개방하여 독서를 주민들의 생활환경속으로 운반하여 책과 직결시키는 봉사활동이 강구되어야 만 할 것이다. 방법 으로서는 농어촌 주민을 위한 “손수레 순회문고”라든가 또는 북케스를 이용한 “가정순회문고” 도서관의 주민을 위한 “연락선을 이용한 섬순회문고”등의 독서 자료의 제공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독서인구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서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국민들 머리 속에 집어 넣어 주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독서할 수 있는 자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 도서관이라는 인식을 모든 국민에게 심어줌으로서 다음 단계에는 스스로 도서관을 찾아오도록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독서인구개발을 위한 도서관의 봉사활동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독서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야 한다.

이의 구체적인 목표는 먼저 독서습관을 길러 주어야 한다. 그리고 두번째는 독서의욕을 가지게 한다. 셋째는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양서와 적서를 정선하여 독자층별로 계속하여 안내하고 소개되어야 한다.

(2) 독서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미독서층의 생활주변에 책을 공급해 주는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종로도서관의 “이동순회문고”와 같은 형태로서 순회문고의 설치가 시급하고 또 서어비스 포인트의 증설이 절대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내의 행정구역을 기초로 많은 서어비스포인트를 설정하여 이 서어비스 포인트를 하나의 조직망으로 정하여 주기적인 독서자료의 공급과 순환활동이 하루빨리 전개되어야 한다.

(3) 독서운동을 위한 지역별 각급도서관의 상호협조

독서인구 개발을 위한 독서운동이란 결코 어떤 주간 행사만 으로서는 도저히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주간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극적인 작용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끝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주간행사의 기질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독서운동이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지역별로 모든 독서자료와 독서 시설이 동원되어 계속적으로 추진 함으로서 점차 독서 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독서 운동이 계속 사업이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지역별 각급 도서관은 상호 협조하여 지역별 독서운동추진협의체의 조직이 절대 필요 하다고 믿는다. 이 지역별 독서운동 추진협의체가 기반이되어 도협에 전국독서운동추진협의체가 조직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은 도서관 전문적으로 하여금 독서인구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4) 도서관자체에서의 독서운동을 위한 기본계획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도서관이 전통화된 봉사활동만으로서만 만족할 수가 없다. 도서관의 진로가 사회발전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여 이에 동승하여 새로운 형태의 서서비스가 개발되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급 도서관의 기능발휘를 사회의 발전면에서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과 더불어 기본적인 활동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중

로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어머니 책 읽기 운동”이라든가 “하루 20분 책 읽기 운동”등과 같은 독서운동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일은 도서관이 독서인구개발에 앞장서는 활동으로서 권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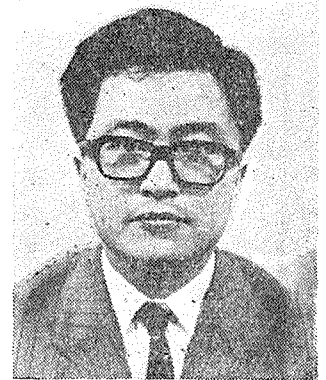
독서운동의 추진을 위해서 도서관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독서운동의 현황을 살피고 앞으로의 진로를 고찰해 보았지만 문제는 도서관이 중심되어 책과 국민들을 어떻게 직결시키는가에 대하여 도서관 전문적들은 새로운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책과 국민과의 직결은 도서관의 모든 봉사활동의 기초작이기도 하다. 따라서 책과의 직결활동이 잘 되면 그만큼 도서관의 미이용자층의 개발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독서인구의 개발도 되는 것임을 깨닫고 각급 도서관에서는 자기 도서관의 특성에 준하여 봉사활동의 사업계획에 독서인구 개발이란 새로운 활동형태를 마련하여 책과 국민과의 직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언론인이 본

## 讀書運動의 現況

金 炳 翼  
(東亞日報 文化部)



### 1

근년 <독서>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것을 별사회적인 <운동>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어딘가 숨어있는 깊은 결함을 반증해주는 심각한 고민의 표현으로 보인다. 책을 읽는다는 일은 분명히 개인적 행위이며 독서의 동기나 결과는 독자 개인의 것으로 귀속된다. <畫耕夜讀>이니 <燈火可親>이니 혹은 <螢雪之功>이란 말들은 어김없는 개인적 교훈이었지社會運動化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사회교육, 국민운동의 형태 등 국민 전반의 과제로 설정하고 독서의 권장단체가 발족하며 그 회원들이 거리에 나와 리봉을 달아주기까지 되었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사회의 근본적 변질을 느끼게 한다.

그 변질—책을 읽어라 읽어야한다는 社會的 命題가 성립되어야 하겠끔 잘못되었다는 그 변질의 모습은 역설적이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독서운동 그 자체의 양상에서 우선 발견할 수 있다. 가령 마을문고가 지난 8월, 전국 5만 8천의 자연부락중 2만군데의 문고설치에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점, 혹은 자유교양추진회가 개최하는 전국 자유교양경시대회에 작년의 1百30萬에 이어 올가을에 2百萬의 학생이 참가하리라고 예상하는 점들은 <독서>가 의미하는 본연의 성격과 빛나간 모습으로 보이게 한다. <독서>는 잘 알다싶이 교양있는 시민의, 창조를 소망하는 개인의 內的 體驗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과연 2萬개의 문고설치, 또는 금메달을 타는 경시대회의 우승과 무슨 관련이 있을 것인가? 質로 밖에 평가될 수 없는 內向的 효과가 통계로, 숫자로, 목

표량으로, 실적으로 측정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미만하고있는 物量主義와 拜金主義의 한 모습이 그것과 본질적으로 달리하고 있는 讀書란 內的行爲에까지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한 사회의 문화는 총체적으로 책으로 수렴되며 한 사회의 정신은 그 책에서 放射된다. 해방후의 우리 現代史는 책의 상실과 도서에 대한 무관심 독서로부터의 疏遠으로 일관되어왔다. 이것은 곧 文化가 응집될 초점을 잃고 있으며 精神의 힘이 개발 보급될 채널을 놓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마 전쟁과 혁명, 경제적 개발과 사회의 안일주의가 도서에 대한 열의를 상각시키는 동시에 도서문화계 자체의 저조가 그러한 物量主義와 拜金風潮를 만연시키는데 相乘作用을 해왔으리라. 이런 사정을 이해한다면 讀書運動 자체가 무기력한 統計數字에 의존하게 된 것도 당연한 현실로 보인다.

2

측 數的으로 평가될 수 없는 독서가 <社會運動化>하는 과정에서 통계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 <文庫 2萬개 설치> <2百萬의 학생 참가>란 그 숫자가 사회에, 국민에, 혹은 매스컴에 위압감을 주고 정부당국의 관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는 일종의 流行을 만드는 힘을 얻게 되고 그 流行의 힘은 독서에 무관심한 국민이나 당국에 보이지않는 壓力으로 작용한다. 신문이 독서운동에 대해 지면을 할애하고 당국이 약속하나마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로 되는 것은 이러한 數字의 魔力때문일 것이다.

讀書를 大衆化하려는 사회적 노력은 크게 두개의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하나는 國立中央圖書館, 圖書館協會, 出版協會 등 圖書文化관계 機關이며 또 하나는 마을文庫, 自由敎養推進黨 등 독서운동 그 자체를 主事業으로하는 社團法人體다. 양자의 성질이 다른 만큼 그 활동이나 운영방식이 전혀 다르지만 공통된 점은 다같이 오늘의 非正常的인 讀書風土를 수정하려는 노력이 근래에 와서야 定着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圖書館協會는 가을의 독서주간, 봄의 도서관주간을 통해 도서관을 무료 개방하며 강연회, 좌담회 등을 통해 도서관의 중요성을 계몽하는 年例事業을 갖고 있고 國立中央圖書館은 圖協의 사업과 발을 맞추는 그 한편으로 圖書館모범 利用者의 표창, 작가와 독자와의 대화의 시간개최, 1日司書制 등으로 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책임을 사람과 접촉한다. 出版協會는 매년 가을마다 圖書展示會를 열면서 모범藏書家표창, 讀後感賞文 현상모집을 하고 있다. 이들 機關의 독서권장운동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이며 미온의 상태를 벗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讀書의 生活化를 위한 주목할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4월 鍾路圖書館에서 처음 가동시킨 移動文庫로써 학교와 동네에 순회, 책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鍾路圖書館에 이어 光州全日圖書館도 마련한 이 移動文庫車는 첫째 열람실에 독자가 찾아주길 기다리는 수동적 행위에서 대충속으로 책을 사람을 찾아 파고드는 적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둘째는 최초로 책을 館外貸出해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61년에 발족된 마을文庫는 전국의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文庫함을 설치, 농어촌 지도서와 함께 교양서적을 농어민에게 제공해주는데 8월 말의 2만개에 이어 내년말까지 3만개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작년부터 職場文庫 설치사업을 추가 讀書聯盟의 자매기관을 설치한 同會는 작년 文公部の 지원으로 全國讀書競進大會를 가졌다. 마을文庫가 지방농민의 社會敎育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면 66년에 정식발족된 自由敎養推進黨는 학생들의 自由敎育의 일환으로 古典讀破운동을 벌여 68년부터 全國自由敎養競試大會를 東亞日報社와 공동주최해왔다. 初·中·高·大學 및 敎師 등 4종목에서 작년부터 姉母部를 신설한 이大會는 古典의 독파이해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이 推進黨의 특징은 古典을 쉽고 아름답게 번역한다는 취지를 당초부터 세워 경시대회와 연결시키고 있으며 학년별로 읽어야 할 고전을 정도에 맞추어 단계화했다는 점이다. 이 밖에 작년 여름 독서장려회 등 2개단체가 동시에 발족, 독서망을 조사하며거리에서 독서권장리본을 달아주는 등 활발한 듯 했으나 오래잖아 주저앉고 말았다.

3

독서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문화관계기관과 민간 자발적 법인체사이에는 현재로써 긴밀한 유대관계도 없거나 활동성향이 상이하여 서로 엇갈리고 있는 인상을 준다. 國立中央圖書館, 圖書館協會, 出版協會 등의 기관은 도서의 발행 수장활동 보급이란 근본업무에서 멀리 나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公的 組織인만큼 독서의 大衆化란 사업에 뜨거운 열의나 발랄한 창의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독서운동을 위한 활동들은 거의 <年例化>하여 이미 신선한 매력과 생기있는 움직임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적극적인 독서운동단체가 아니라는 기관의 성격문제에 어찌보면 無事安逸主義에 기울어 창의력을 작용시킬 사명감을 잃고 있다는 점이 가산될 수 있을 것 같다. 公的 機關란 일을 안해도 유지될 수 있지만 좀 더 활동적인 유능한 지휘자를 만날 경우 훨씬 더 큰 효과와 실적을 얻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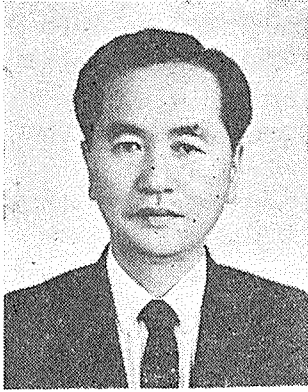
도 있다. 최근 몇 년동안 國立中央圖書館이 유능한 司書官들을 모아 圖書館憲章을 제정하는 일부터 책의 대출에 이르기까지 奉仕활동을 전면적으로 일신하려고 노력한 점 특히 鍾路圖書館이 移動文庫車로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하였다는 점은 그러한 좋은 例證이 될 것이다. 公共機關이 항상 低調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豫算不足문제도 그렇다. 일을 하고 그 실적을 겉우는 기관에는 예산이 많이 가기 마련이며 돈을 주어 사업을 벌이라고 예산기관에서 권고하지 않는다. 李昌世전中央圖書館長이 3千萬원대의 年豫算을 2년만에 약 1億원으로 대폭 증가시킨 것은 사업을 먼저 벌인 후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얻어진 것으로 유능한 지도자가 얼마나 충실한 작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실례를 보여준다.

열의있고 창의적인 지도자의 능력은 마을文庫와 自由敎養推進黨에 잘 나타난다. 두단체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창설자가 독서와 도서의 중요성을 절감하는데서 출발, 개인적인 사명감과 창의력으로 육성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마을文庫의 嚴大燮씨의 경우, 개인도서관을 개관시킨지 10여년만에 마을文庫의 着想을 얻었고 일체의 勞力과 資力을 여기에 헌신함으로써 오늘의 1百萬會員을 확보하게 된 것이며 自由敎養推進黨의 金昌洙씨 역시 20년전 개인적 체험으로 절감한 自由敎育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 한 것이 5년전, 오늘의 대규모 조직을 이룩하는데 자신의 심신을 모두 이 사업에 바쳐왔다. 이들은 독서운동을 관념적인 명제로 받아드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했으며 그것이 개인적으로 절실했던 체험에서 솟은 사명감과 결합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다. 두 단체의 사무실 분위기가 어딘지 진지하고 의욕적이며 자발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이러한 창설자의 체취에서 우러난 것이다. 독서운동에서 개인의 퍼서넬리티는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발상이나 노력은 사회의 어떤 비정상적인 풍조에 일차적으로 저항하며 그것이 <文化的>이란 명분을 살려 구체적인 사업을 벌이는 만큼 별다른 사명감과 창의력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우리나라에서의 독서운동이 개인의 능력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거의 별거벗은 상태에서 有的 창조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반영해준다. 5·16이 나기 전에 정식 발족한 마을文庫도 私財로 발기되었고 그의 도와 성과가 신문에 보도됨으로써 63년에 처음 40萬원이란 정부보조금을 얻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自由敎養推進黨도 마찬가지였다. <별거벗은 상태>는 직원들의 봉급을 지불하면 남는 돈이 겨우 없는 도서관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속에서 독서의 필요성이이

만큼 인식되고 그 운동이 비교적 확실한 자기자리를 차지하게된 것은 거의 기적처럼도 보인다. 독서운동가들은 이 별거벗은 상태를 벗기위해 양적 팽창, 숫적 증가로 노력을 집중해왔고 그것은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러 새로운 전환을 시도할 지점에 이르렀다. 이 전환은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가령 도서관이 연례적인 행사를 벗어나며 移動文庫車를 설치하고 지방공공도서관이 地域開發센터의 가능성을 점쳐본다는 것, 마을文庫가 이번 여름의 文庫會員 여론조사를 통해 圖書의 實用性, 운영의 實効性을 검토해 보는 것, 自由敎養推進黨가 종래의 객관적 競試를 재검하면서 古典의 우수한 譯書普及에 노력한다는 것이 그런 예들이 될 것이다. 量에서 質로, 行事에서 生活化로 전환하는데는 이제까지의 量的 팽창보다 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數的 증가는 일종의 유행과 같아서 그 봄이 가라앉으면 사그러진다. 여기서 봄에 떠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착시키는가 독서를 어떻게 시험이 아니라 생활의 지혜로 밀착시키는가. 어떻게 고급독자층을 형성하느냐가 이제부터 더 필요한 과제가 되며 지금까지의 독서운동은 결국 이 목적을 위해 봄을 조성시켜 온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부터는 불행히도 한 개인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도서관화기관이나 독서운동단체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도서 또는 독서풍토의 전환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되며 그 변화는 정부 당국과 각계의 공동협조에 의하지 않고는 안된다. 가령 문공부가 양서의 개발과 엽가 서적의 보급을 위해 출판계를 지원하며 문교부가 학교 및 사회교육 과정에 독서를 중요한 과목으로 강화해야 하고 도서관을 육성시켜야 한다. 대학은 양서의 저자를 배출하고 독서교육이 하급 교육기관에 번영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일반학교는 독서가 생활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도서관은 종래의 수동적 태도에서 탈피, 시민과 보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다른 도서관 또는 독서단체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 보다 유기화시켜야 한다. 독서단체는 이제까지의 不實性을 극복 우선 안정수준으로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독서행위를 심화 내향화시켜야 한다—는 등등의 일은 어느 한쪽 한 개인의 노력으로만 말할 수 없다. 공동의 작업, 공통의 사명감으로 독서운동의 질적전환을 이룩하지 않는 한 이제까지 이루어온 독서운동 <봄>은 無化할 위험이 많다. 이것은 그저 展望이 아니라 어떤 決斷을 요구하는 것이다. 독서를 통한 사회의 발전이 가능한가하는 문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독서운동의 심화와 질적향상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도서·독서관계인들의 결단없이 자못 회의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출판인이 본

# 독서운동의 現況과 方向

이 경 훈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 1. 序 言

독서운동은 空虛한 말로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책을 읽어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 봐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지지 않으면 讀書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讀書運動은 具體인 모든 方法을 치밀한 計劃下에 계속적으로 推進되어야 할 問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讀書운동이란 무엇인가. 冊을 읽도록 著述하는 일, 그 著述할 원고를 정리하고 冊다운 冊이 되도록 편집하여 出版하는 出版社의 일, 그리고 그와 같이 해서 出版된 冊을 널리 普及해서 讀者를 찾는 일로서 書店이 擔當할 일, 그리고 圖書館과 教育機關에서 意圖의으로 展開하는 讀書운동을 큰 軸거리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 밖에도 매스컴에서 실시한 캠페인과 매스메디아를 통한 書評과 新刊紹介, 廣告, 圖書目錄事業 등이 있는 것이다.

本稿는 上記한 모든 讀書운동의 現況을 소개하자는 것이 아니고, 平素 出版界에서 이 문제에 對해서 느끼고 걱정했던 점을 中心으로하여 本誌 讀者와 對話를 나눠보기로 하겠다.

<표 1> 最近5年間 一般圖書發行推移

年度	區分發 種數	行指 數	總發 行指 數	總發 行指 數	平 均發 指 數	平 均發 指 數
66年	3,102	100%	7,490,570	100%	2,413	100%
67年	2,216	71.4	4,941,850	66.0	2,230	92.4
68年	2,528	81.4	5,047,877	67.4	1,997	82.4
69年	2,522	81.4	6,666,792	89.0	2,686	111.3
70年	2,980	96.0	5,621,522	75.4	1,847	76.5

(納本統計資料)

## 2. 踏步하는 出版統計(讀書資料)

우리나라는 나라를 꾸며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새 知識의 섭취와 새로운 情報의 交換이라고

말할 수 있다. 知識의 섭취와 情報의 交換을 위한 手段으로서 出版은 아직도 最良의 武器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圖書出版은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年間 發行種數面에서 그 推移를 살펴볼 때 한 말로 踏步狀態에 있다는 點에 對해서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出版文化의 質을 評價할 때, 첫째 出版種類가 多樣化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5年間 種數統計가 2千臺線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런데 近着 W·P誌에 依하면 69年度 先進國 出版種數別 現況은 美國은 3萬5千種, 英國은 3萬4千種 日本은 2萬6千種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유네스코 統計資料에 의하면 出版種數를 人口 百萬人當으로 算出하여 國際比較를 하면 67년에 和蘭은 890種으로 가장 많고, 다음 英國의 530種, 西獨 510種, 美國의 498種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74種으로서 先進開發國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 개발도상국 가운데서도 自由中國의 170種보다도 매우 劣勢에 있다. 한 比較에 의하면, 日本의 兒童圖書種數와 우리나라 總發行種數와 거의 같은 2千點線에 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兒童圖書의 種數統計는 70年度에 268點에 불과하다. 日本과 兒童圖書 하나만 놓고 비교할 때 日本의 어린이들은 多様な 圖書를 읽을 수 있는 幅 넓은 機會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出版種數가 多樣化되지 않으면, 出版은 그 本來의 제구실을 다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祖國近代化에 必要한 道具로서 當面한 出版文化의 根本問題는 出版種數의 貧困을 解決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全體 國民에게 읽을 거리(讀書資料)를 제공하는 일인 것이다.

出版界는 이 문제를 國家水準에서 解決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看破하고, 國家圖書開發委員會의 設置를 政府에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反應은 無에 가까울 정도에 있는 것이다. 圖書開發에는 圖書生産, 供給, 企劃等 綜合的인 計劃이 必要하며 이에 資金이 必要한

것이다.

### 3. 出版物 供給量의 貧困

近着 W.P. 誌 資料에 의하면, 지난 69年度에 總圖書 賣上高가 미국에서는 27億弗를 上廻하고, 英國에서는 3億4千萬弗, 日本에서는 5億4千萬弗로 나타나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14千2百萬弗로 推定되고 있다. 이것을 기초로 국민 1人當 年間 圖書購入費를 算出하여 보면, 미국은 4,320원, 英國은 2,000원, 日本은 1,730원인데 우리나라는 100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基準하여 보면 우리는 美國에 比하여  $\frac{1}{40}$ 과 日本에 比하여  $\frac{1}{17}$ 의 出版物을 供給하고 있다는 이야기 가 된다.

우리 出版界는 出版物 供給量의 貧困의 큰 原因을 流通機構의 不健全한 現況을 들고 있다. 出版物의 流通機構란 다른 것이 아니고 書店을 말한다. 이 書店의 機能이 거의 癱瘓상태에 있는 것이다. 書籍商聯合會의 말에 의하면 지난 64年 以來 京鄕 各地의 書店은 해마다 衰退一路에 있다는 것이다. 書店은 讀書資料를 供給하는 唯一한 經路인데 이 經路가 끊겼다면 참으로 重大한 問題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구체적인 事例를 한 資料에 의하여 소개하면, 69年과 70年 사이에 서울의 경우 38年의 歷史를 가진 忠武路의 國民書館, 또 20年의 歷史를 가진 乙支路의 東春書林이 문을 닫았고 이 밖에도 文友書店 등 7,8個 書店이 閉業 또는 休業中이며, 변화가의 서점은 그 자리를 지탱하지 못하고 번두리로 쫓기고 있다는 것이다. 즉 鍾路로타리의 20年 이상 高孤히 버티고 있던 學友書林은 齋洞으로 後退하였고 그자리에는 「떡가게」가 되고만 것이다. 地方의 경우도 비교적 규모가 큰 書店들이 70年 4月을 전후하여 倒産 또는 廢業者가 속출하였다는 것이다. 즉 濟州의 永東書店, 水原의 단골書店, 木浦의 信友書林 등은 교과서 공급과 出版協同組合 供給店으로서 都散賣를 겸한 큰 규모의 20여년 이상의 店舖들이 그 지경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出版文化의 앞날을 가름하여 看過할 수 없는 問題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反對로 東大門市場內 大學川中心 書店街와 淸溪路6街 一帶 平和商街, 釜山 寶水洞 一帶, 大邱市廳 앞 一帶와 三德洞 一帶, 光州 鷄林洞 一帶의 所謂 덤핑 出版物이라고 말하는 低俗出版物을 판매하는 書店들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도서시장은 低級한 讀者에 迎合하는 低俗物만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專門書나 機能書 등은 그 普及의 길이 막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實情은 國民 知識의 均衡된 보급을 위해서 時急히 適切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書店의 健全化는 오늘 날 強調되고 있는 精神 資源의 開發 내지는 國民精神 醇化를 위하여서도 適切한 對策이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

韓國出版界는 年來의 宿題인 出版物一元供給機構를 만들어서 全國에 指定書店網을 組織하자는 것도 그 취지는 書店 운영의 전진화에 있겠으나 아직 이 기구를 支援할 財政의 確保가 곤란하여 離産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現實로 보거나 政策의 比重이나 先後 緩急으로 생각해 보거나 이대로 오래 끌 問題가 아닌 것이다.

書店이 正常化되어야 이 나라 出版業의 前途에 기대를 걸 수 있다. 아무리 좋은 良書라도 이 良書를 供給할 書店이 없으면 出版할 意慾, 創作하고 著作할 意慾은 挫折되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國家的인 重大한 問題인 것이다. 書店과 圖書館과는 그 機能面에서 같은 면이 있다. 이 같은 면의 발전을 위하여 相互協調해야 할 點이 많은 것이다.

### 4. 讀書運動의 根本問題

#### (가) 現實把握부터

우리 현실이 독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생각해야 한다. 걸치레에 汲汲하고 內實을 등한히 여기는 風潮에 대해서 우리는 讀書와 相剋된다고 보고 警戒해야 한다. 輕薄한 것, 近視眼의인 것은 讀書不在에서 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讀書氣風의 振作이 緊要하다.

#### (나) 教育에서 讀書는 모든 것의 基本이다.

이말은 미국독서운동단체의 공식 명칭인 것이다. 과연 이 단체의 명칭대로 成長期 어린이에게 讀書는 모든 것의 基本이라는 表現에 對하여 누구도 共鳴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出版界에서는 지난 70年 1월에 文教部長官님 앞으로 다음과 같은 要旨의 建議書를 드린적이 있다.

즉 讀書運動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國民學校 國語教科書에 計劃的이고 親切한 讀書指導와 讀書基準을 設定하여 편찬하여야 한다고 主張했었다.

특히 우리나라 國民學校 國語教科書에 실린 글씨 볼 때 모두 作品名, 作家名, 번역자 등이 明示되고 있지 않으며 또 「교과과정해설」에도 없으므로 국민학교의 독서지도는 결국 담당 지도교사의 力量에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인데 對해서 外國의 國語教科書는 各 單元마다 參考欄을 두어 讀書案內 즉 冊名, 著譯者와 冊內容을 百字程度로 간단하게 소개하였는데 冊의 종류도 科學, 宇宙科學, 動植物, 自然, 文學, 探偵, 스포츠 등으로 끌고루 소개되어 있고 또 學年에 맞는 寓話, 童話

를 선정 소개하여 그 책을 읽지 않고는 못견딜 정도로 動機誘發을 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成長期 어린이 讀書指導를 國家가 科學的으로 履行하고 있음을 確認했다는 것이다.

讀書習慣化는 어릴 때 부터 몸에 붙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公教育機關에서 實踐하는 길이 가장 適切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이것을 거울삼아서 곧 教科書 改編事業에 反映시켜야 할 것을 거듭 強力히 促求하는 것이다.

5. 結 論

우리는 “經濟建設과 併行해서 精神資源의 開發에 努力한다”고 말씀한 朴大統領의 말씀을 꼭 믿는 것이며 또 第8代 國會의 活動에 前無後無한 期待를 거는 바이다.

70年代 前半期の 國政을 장악한 共和黨政府는 지난 번 選舉公約을 통하여 國政刷新과 文化向上과 社會福祉增大에 力點을 둘 것을 淸명하였다.

우리는 前述한 現實 把握에서 輕薄한 風潮를 몰아내기 위해서 讀書의 機能이 必要하다고 指摘하였다. 70代는 文藝中興의 年代라고도 말하는 이때에 國政刷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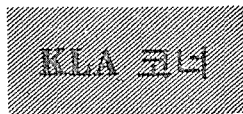
의 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나, 또는 文藝中興을 위해서나 現政府와 國會가 協調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巨視的인 經倫을 展開하는 일로 集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첫째 國會에서는 文化振興을 위한 立法活動에 着手하는 것이며, 이런 方向으로 行政府를 變換해야 한다. 日本國會가 平和宣言과 더불어 教育總財政確保에 대한 基準을 政府에 建議한 것이라든지, 美國議會가 學校教育과 讀書計劃을 特別히 調査하여 報告書를 作成, 政府에 提出한 事例등을 참고하여 보다 雄大한 國會 立法調査活動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國會에서는 文化施設에 財政投資를 總豫算 規模에서 相當한 比重을 確保하여 一線을 그어서 絕對로 그 이하가 되어서는 不可하는 決議案을 採擇하여 주기 바라는 것이다. 公共圖書館 施設基準이 모호하고 勸獎條項으로 되어 있는 圖書館法 같은 것이 法다운 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文化振興費 또 教育施設에 所要되는 財政確保에 對한 決議案을 通過시켜서 올바른 方向으로 國政을 指導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立法調査活動을 하는데는 專門職 機能團體의 意見을 傾聽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指數曲線의 法則

일찌기 1944年頃에 Wasleyan 大學의 司書였던 Fremont Rider는 미국의 大學圖書館을 屢次히 觀察한 끝에 藏書量의 增加에 關한 一定法則을 定立한 바 있다. 그는 圖書館의 藏書增加量은 平均 16年을 한 週期로 하여 自乘率로 上昇하고 있음을 立證하고 이를 圖式化하면 指數曲線을 示顯하고 있음을 定式化하였다. 同一한 目的이지만 社會學者인 Price Derek은 1951年頃 學術雜誌의 增加率을 觀測하고 50년에 10倍의 增加率이 있음을 證明하여 指數曲線의 法則을 再次 立證하였다. 이 指數函數의 常數는 約 15年이며 이는 50년에는 10倍, 1世紀에는 1000倍의 增加率이 있음을 指適하는 것이다.



× ×

이러한 指數曲線의 法則에 따른다면 2040年頃에 이르러서는 한 圖書館이 收容하는 藏書는 2億冊을 超過하게 될 것이며 目錄函은 75萬個가 必要하게 되고 年間增加冊數는 1,200萬冊, 書架의 길이는 6,000마일 그리고 最少限 6,000名 以上の 司書가 必要하게 될 것임을 Fremond Rider는 豫言하고 있다. 이와 같은 豫測은 全혀 事實無根인 것은 아니다. 지금 地球上의 모든 國家가 發刊하는 圖書는 年間 58種이며 約 50億冊의 도서가 범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마치 海盜과도 같이 兪습하는 文獻의 巨大한 물결에 對應하는 圖書館의 對應力은 어떠한

가? 情報公害의 除去者라고 까지 自處하는 圖書館 能力이 과연 指數曲線의 現像으로 增大하는 文獻에 對하여 傳統的인 分類나. 目錄의 方便으로 對應할 수 있을 것인가?

圖書館의 將來가 지금 岐路에 놓여있는 카오스의 狀態이며 處方 없는 陣痛속에 있음을 지적하는 것은 絕對로 杞憂라 할 수는 없다. 그것은 事實上 未來의 衡擊으로 囚한 眞空狀態인 것이다.

이러한 충격과 陣痛으로부터 希望과 處方을 얻는 길은 무엇인가?

圖書館人이여!

그것은 準備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코 絶望의인 狀態가 되지 않은 것이다. 圖書館은 未來에 닥아올 豫測할 수 있는 모든 可能性을 爲하여 準備하여야

한다. 그것은 도서관학의 概念構造로부터 現場의 作業流動에 이르는 철저하고 一貫 概念革新을 必要로 한다. 특히 分類·目錄의 개편방법이 屢次히 研究되어야 한다.

여기 分明히 宣言할 수 있는 것이 있다. 文獻情報의 處理가 결코 圖書館學의 獨點物은 아니라는 것이다. Etzyoni Amitai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직업집단의 形成은 競爭으로 決定되는 것이지 附與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圖書館이 장래에 대한 彈力的인 對應을 拋棄한다면 앞으로 臺頭되는 知識產業은 결단코 圖書館의 無能을 방관하지 않은 않을 것이다. (현)